2019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1교시)

01 출제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시험시간: 100분)

〈가〉

사회 집단은 소속감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된다. 내집단은 집단에의 소속 의식이 강하고, '우리'라는 동질감을 갖는 집단으로 우리 집단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을 외집단 또는 그들 집단이라고 한다. 한 개인에게 어떤 집단이 내집단이나 외집단이 되는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은 내집단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생활과 관련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내집단 의식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개인이 집단에 구속될 우려가 크며, 외집단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한편 외집단은 내집단 의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

국가는 국민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따르는 이들에게 특정한 권리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아닌 다른 집단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는 국가의 요구와 특권이 적법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국민들이 정체성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부 서비스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득이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와 유사한 사람들, 즉 같은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배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이 결정이 우리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려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린 동료 시민들의 권리 또한 인정해줌으로써,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확장될 수 없는 '편애의 감정'을 동료 시민들에게 보여준다.

미국의 역사교육은 학생들에게 특수한 사회집단, 즉 국가라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고양하는 것은 이미 사회에서 정치적 · 경제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해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의 정체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 전체에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는 그런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고,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하나의 비전을 공유해야만 단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양한 정체성까지 모두 포용하는 것은 국가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해체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립하는 과정은 '우리가 누가 아닌지'를 확립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미국 시민으로 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지기 쉬우며, 특히 특정 시기의 지배적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

〈다〉

이 소설은 내가 서울을 떠나 '섬도시'로 이사하면서 싹을 틔우고 얻은 결실이다. 공항을 가면서 두어 번 지나친 적은 있었으나 한 번도 발 들여 놓지 않은 낯선 곳으로의 이사였다. 매립지인 만큼 누구도 살아 보지 않은 새로운 땅이라는 매력에 끌리면서도 섬이 주는 유배지 비슷한 느낌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이 섬에서 그들을 만났다. 이상하게도 별로 낯설지 않았다. 내 속 깊은 곳에 있던 '난민 의식'이 살아나 동질감을 느꼈던 것일까?

난민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추방당한 사람(refugee)'이라는 뜻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displaced person)'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한다. 그 말이 이전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세계

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곳이 나에게 문을 쉽게 열어 주지 않을 때, 또는 그 속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했건만 어느새 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나 혹은 당신은 난민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고, 지중해나 시리아나 아프리카 어느 지역 같은 먼 곳의 문제만도 아니다. 어느 날 문득, 나 혹은 당신은 '그들'과 다르지 않은 처지의 난민임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한 번이라도 눈이 마주치고 미소가 오가고 나면 처음의 경계는 잦아들고 이웃 같은 친근감이 생긴다는 거다. 우리가 지구라는 더 큰 열차에 올라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류임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건, 사실 아주 간단하다.

— 표명희, 『어느 날 난민』"작가의 말"

〈라〉

오늘날 국제 사회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 영역에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국제 난민 문제는 빈곤, 내전, 정치적 박해 등에서 시작하여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입장까지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쏟아지는 이주민 · 난민 때문에 1991년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다음은 최근 유럽 연합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이다.

*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조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그림 1). 2015년부터 2년간 터키에서 체포된 ISIS 대원은 5,310명이다.
* 독일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난민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가 174,438건 발생하였으며, 2015년과 비교하여 52.7% 증가하였다.
* 2015년 9월 민간조사회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이 매년 최대 난민 100만명을 받아들일 때 난민 대책 비용으로 향후 2년간 약 32조9,1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 난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2015년 10월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2013년 4월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난민의 유입이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1) 2015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문제 1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 제시문 〈나〉에서 대립되는 두 견해를 찾아 서술하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사례]에 나오는 캐퍼닉에 대한 두 가지 시각–배신자 또는 영웅–을 각각 설명하시오. (900±100자)

[사례]

미국 프로풋볼(NFL) 최고 선수 중 한명이었던 콜린 캐퍼닉은 2016년 8월 경기에 앞서 진행된 국가 제창 때, 기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었다.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는 "인종차별에 항의"한 퍼포먼스였고, "흑인과 미국내 유색인종을 탄압하는 나라의 국기에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일어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후, 캐퍼닉은 협회의 처벌을 받아, 2017년 팀에서 방출된 이후 어떤 프로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캐퍼닉의 퍼포먼스와 그로 인해 받게 된 처벌, 그의 지속적인 인종차별주의 반대 운동은 미국내 큰 화제가 되었고, 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졌다. 어떤 이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규탄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격찬하였다. 미 언론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애국심"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당시 캐퍼닉의 유니폼 상의 판매량은 팀내 20위에서 1위로 올랐고, 전체 NFL 선수 중 3위를 차지했다. 한 뉴스매체에 따르면, 대부분이 캐퍼닉을 지지하는 의미로 유니폼을 구입했지만, 일부는 캐퍼닉의 유니폼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키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저스트 두 잇(Just Do It)'캠페인을 기념하는 광고 모델로 그를 발탁하면서 그 이유가 "스포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세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근래 가장 영감을 준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나이키를 비난하였고, 증시에서 나이키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였으며,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도 일고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의 개념과 제시문 〈다〉의 관점을 활용하여 [사례]의 두 집단이 내집단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를 토대로 [사례]의 예멘인들에 대해 바람직한 난민정책은 무엇일지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900±100자)

[사례]

2014년도부터 시작된 내전을 피해 500여명의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온 뒤, '난민'은 한국 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화두가 되었다. 서울시내 도심에서는 난민 입국에 찬성 ·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민이 먼저다,""자국민 안전과 보호 최우선"등의 구호를 내건 '불법난민외국인 대책국민연대'(이하 난대연)가 주최한 집회에 운집한 참가자들은 "난민 반대는 인종차별이 아닌 현실적인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난대연은 성명서를 통해 "인종말살과 대량학살에 처한 난민들은 보호해야 하지만, 단순히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자국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징집을 피해 떠도는 이들은 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인 난민 지위를 악용하고, 인도주의적 자원을 착복하는 자들을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난민법이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기관이 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난민법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난민 반대 반대 집회의 참가자들은, 난민 반대 집회를 규탄하며 "난민반대를 반대한다,""정부는 유엔 난민 협약을 이행하라"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조류는 인종차별적이고 배외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단면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난민에게 덧씌워지는 근거 없는 공포는 '정치의 실패'이며, 결코 난민을 향한 혐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집회를 앞두고 공개한 결의문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들어온 명백한 난민"이라며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반지성주의 등과 싸울 것이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예멘 난민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

0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 이번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논리적인 글쓰기 역량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시사적인 글, 문학작품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 · 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경제』, 『세계지리』, 『법과 정치』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내집단 · 외집단,' '보편적 인권', '세계시민의식', '차별 · 포용', '정체성', '다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
- 교과서의 지문과 다양한 종류의 글(EBS 수능교재, 문학, 신문기사, 이론서 등)에서 발췌된 제시문을 읽고, 이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비교 · 분석할 수 있는지, 개념을 현실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험생의 독해력, 비판적 및 독창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시문 내용의 비교, 분석, 적용, 평가 등을 별개로 작성하는 문항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도록 문제를 출제하였다.

나. 제시문 요약

- 제시문 〈가〉는 『사회 · 문화』 교과서(미래엔)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제시문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하고, 이 두 집단 간의 경계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관련교과서:

- *강운선 외(2014), 『사회 · 문화』 (p.68), 미래엔*